

“얼마나 더 손님으로 와야 할까”



4월30일 오후 2시30분, 두번 페이지 이번 방북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하였다. 지난 27일 만남에서 격의없이 나온 대화를 정리하여 이제 통일을 위한 장식으로 직접 사용할 금강같은 언어들을 간추리기 위한 시간이었다. 예정대로 이날 우리를 맞은 사람은 박태호위원장, 박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야말로 북한불교의 얼굴인 총장이자 총무원장과 같은 사람이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그를 만난 분들은 알겠지만 그는 지도자의 위상에 걸맞은 외모와 맑은 대의 집속 경험에서 오는 여유와 인내심을 함께 지닌 사람이다. 간혹 북한의 다른 불교 인사들을 만났을 때 종교인으로서 주는 외양에 대한 이미지에 어딘가 의아해 하던 사람들도 일단 박위원장을 만나면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올해 76세, 그는 북한 불교의 시작이요, 마침표였다. 이층 집전실로 안내된 우리들은 총무원장, 심상면서기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은 내용들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앞에는 반드시 때(時) 사람(人) 장소(處) 등의 삼인(三因)이 맞아야 하는데 인연이 부족한 탓에 오늘의 남북불교 교류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날의 우리 만남에서 비롯된 셈이 흘러가는 물줄기라면 물이와 바다 건너에서 이 방북기를 쓰는 불자의 마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조선불교도연맹 방문 (5·불)

‘통일 시금석 찾기’ 회담 3시간... 성과기대 남북교류 “혼선 피하자” 창구 일원화 합의

음은 흐릿하기만 하다. 이날 박위원장은 종단협의 회장, 평택협의회장, 총무원장의 직함이 장황하게 나열된 송월루스님앞으로 된 서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점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연유는 지금까지 북쪽이 어떤 접촉 문제를 남쪽에 제기할 때 각 개인을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쪽의 통일논의를 여수선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이의 시정을 팔자가 강하게 주장하자 자폭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수긍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북한은 일주, 법타, 진관, 지현스님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내분 모두 남쪽 불교의 대표 자격이 있는 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불교문제가 논의되다 보면 자연히 주도권 및 움직이지 못한 경향이 통일 대안을 복잡하게 만들까 뜻있는 불자들의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논여겨 보면 알 것이다. 위와같은 절묘한 타이틀로 묶였을 때 이들 네분의 대 표상은 물론 불교 각 종단도 포괄될 기회가 열려 미연에 있을지라도 모르는 불인 논의의 혼잡상을 방지하는 명료한 결정인 것이다.



○ 광범시에서 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독하는 필자(오른쪽 두번째). 이날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는 광범시 강구안 주지스님과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올렸다.

대해 하지 않는다. 3시간여의 긴 대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배마침 담담위에 앉았던 까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대기 시작한다. 글쎄 일이 잘될 것 같다는 예시지인지 아니면 남쪽 손님들을 보내기가 못내 아쉽다는 북녘 형제들의 마음인 것인지 가치는 우리가 기념촬영을 끝내고 떠날 때까지 계속 찾아대고 있었다.

정산스님은 이별의 아쉬운
○ 조선불교도연맹에서 2차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남북대표들. 왼쪽부터 박일진, 류인수 선사, 정산스님, 박태호위원장, 황영대부위원장, 지현정사, 심상면서기장, 정서화선사, 젊은이들은 모두 활력있는 젊은이들이다.

장으로 박태호위원장에 중점모를 선물하였는데 박위원장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모든 기념촬영에 임하는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해 주었다. 두분 모두 환호 무렵에 선 노구로서 이제 이 원(願)을 후생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풀고 갈 것인지 셋빛 장상이 더

욱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 광양 899일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며 얼마나 더 손님으로 되어 다시 이곳에 와야 통일이 될지 개나리꽃 우거진 모란봉 기슭을 내려오는 필자의 마음은 사실과 불심으로 어지럽기만 했다.

주부신행담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②

“편지를 주신 교우님이 생각하는 것같이 불교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몇천년을 같이 해 온 민족종교로써...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는 불교를 믿는 어머니의 종교를 이해하고 또한 불교를 믿는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를 이해함으로써 시어머니가 감동하게끔 사랑으로써 며느리가 열심히 부모님께 잘하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기독교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다.

이 답장에 나는 모든 고만을 털어 버렸다. 내가 잘해서 시부모님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독교인 며느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사시지만 부산에서 사실 때 열일곱살에 젊은 열아가 살았는데 아침밥 먹기가 무섭게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다고 한다.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었는데 그만 어린애가 불에 울려 놓은 뜨거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계속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죽어도 기독교인 며느리는 안 얻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상대로 결혼했고, 결혼 후 8개월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집안의 가풍도 익히고, 큰며느리라 말이 없는 집안에 말이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외견도 게서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자 며느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자는 시부모님의 배려로 분가해서 살게 되었다.

아마 내가 시어머니보다 마음이 더 넓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시어머니를 기독교인으로 인도했을 터인데 어머니의 그 걸이를 짊어지지 못했다. 아마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 그 자체였던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도 몸이 쇠약했지만 결혼해서 애나고도 시름시름 아프기를 잘 했다. 그때마다 보여주신 시어머니의 자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불교라는 ‘큰 세계’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시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기독교 믿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생겨났다.

그 정도로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지금까지도... 나는 차츰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뒤시는 책도 읽어 보고 1년에 한번(사월 초과 일은 어머님나라 갈 때도 가게 되었다. 그것인으

로도 어머니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다. 쫓아가지 라는 말 안하시듯, 교회 가지말라는 말씀도 없으셨다. 은연중에 어머니가 보시는 보살행으로 나는 불교에 친근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시집가서 애나고 살면 약하던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어른들의 말씀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약골의 몸은 결혼 후에도 이유없이 잘 아왔다. 애 나고도 몸이 쇠약해지는 말을 보며 친정 부모님도 속대웠고 시부모님도 각별히 보살피셨다. 며느리를 두어 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상잔을 모신 기분이셨으리라.

결혼한 지 7년 되던 해 피로가 유난히도 몰려와 사람을 자치게 만들곤 했다. 잔기침도 조금씩 하고, 가래도 색다르게 나와 피곤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시장을 갔다가도 되돌아 오기가 무섭게 시장 바구니를 내던지고 마루에서 잠들 정도로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 잠깐해보니 신장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독한 약으로 몇개월을 지내다 약으로 인한 위장에 이상이 생김을 느끼고는 한약과 다른 자연식품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기간 계속되다보니 지켜졌다. 운명은 재빨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약을 끊어버렸다. 일한 데 달건적으로 남편이 시기를 후했다.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회사 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믿던 직장에 게 받음을 찍힌 줄이었다. 민사가 귀찮아져서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이런저런 생각할 할 겨를도 없이

주위에서는 허니님 믿다가 믿지 않아서 발발는 거라고 교회 나가기를 계속 종용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혼자 살겠다고 약 먹는 것도 사치인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먹지 않겠다고 우겼다. 하루는 남편이 내게 기도원에 요양이라도 가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살아서 눈감기 전에는 며느리 교회 나가는 것 안 보겠던 시어머니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녀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주위에서 하는 말들을 귀에 담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교회도 기도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가보지도 못한 갈에 가서 요양을 하고 싶었다.

내 의사를 식구들에게 밝히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드디어 불교와 인연을 맺는 게 싫어서 기뻐하셨다. 나는 시동생과 남편의 동행으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수덕사에 가기로 하였다. 불교와 인연은 돌과 마음이 쇠약해져 지칠대로 지친 그때부터 시작됐다. 김 요명심 (피주 보광사)

시어머니의 자비에 나는 불교라는 ‘큰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만남은 병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그때부터였다



6월27일은 지자제선거일. 다같이 투표에 참여 합시다.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뚝시다!

韓國



원비-F
GINSENG & TOCOPHEROL
WONBI-F
1일 1회 1봉
홍릉·호과·목재피로·
자양강장·허약체질
포용소매가
550원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인,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F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洋藥方の 과학학을 선도하는...
한국 100대 기업 선정
일양약품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익이 있습니다.